

##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황 명 숙\*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 무가 <삼공본풀이>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석한 것이다. <삼공본풀이>는 육지의 ‘내 복에 산다’ 계 민담과 유사하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 까지 널리 퍼져 있는 신화이다. 누구 복에 사는가? 묻는 부모의 질문에 천지, 부모의 덕과 배꼽아래 선의 덕(배꼽에서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으로 산다고 대답한 셋째 딸 가문장아기는 쫓겨난다. 가문장아기는 부모와 자신을 이간시키려 했던 두 언니를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전환케 하고, 부모는 장님이 되고 걸인이 되게 한다. 가문장아기는 집을 나와 마를 캐는 마통이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마를 캐는 밭에서 금을 발견한다. 가문장아기는 부자가 된 후 걸인잔치를 열어 장님이 된 부모를 만나게 되고 부모는 눈을 뜨게 되며, 두 언니들도 다시 만나 모두와 화해하며 ‘전생 신’임을 밝힌다.

<삼공본풀이>는 신화로써 神의 이야기이다. 神은 완성된 존재로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지만 이를 민담 차원으로 내려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아버지의 아니마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성적인 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마 원형인 가문장아기는 처음에는 부모에게 배척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장님이 되는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겪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가문장아기가 이 세상에 ‘소명’을 갖고 온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집단 의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여성성’의 창조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성의 의식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타고난 본성(여

접수일 : 2015년 9월 15일 / 심사완료 : 2015년 11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2일

\*중구교당 주임교무. 융학과 분석가

성성)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뜻과 인습적인 가치에 순종하기만 했던 두 언니들도 지네와 말뚱벼섯이라는 미물과 식물로 전환되어 그림자에 사로잡히는 고통과 시련을 겪음으로써 마침내 자기인식을 획득하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마지막에 부모와 언니들과 모두 화해를 하여 전체가 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기실현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자기실현은 가부장적인 집단 의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목적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심 단어** : 가톨릭 · 무가, 아니마 원형, 여성성, 그림자, 자기실현.

## 들어가는 말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이 정체성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여성의 자아정체성 형성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으로서의 나’는 어떤 존재이며,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삶의 양상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융에 의하면 인간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그 본성 속에 융합하고 있으므로, 남성이 여성성을, 여성이 남성성을 살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 반대되는 성의 삶을 산다면, 자신의 성이 뒷전으로 물러나서 타고난 본래적인 것이 덜 실현될 수 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살아야 한다. 반대의性は 항상 무의식의 위협한 이웃이다.<sup>1)</sup> 그러므로 여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무속신화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 심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무속신화의 경우 여성의 일상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그러한 일상을 넘어서려는 여성들의 의지와 소망

1) Jung CG(한국 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p40.

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개성화과정을 탐구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공본풀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본풀이 중 일반풀이에 속하는 것으로 전상신의 내력담으로 알려져 있다. 전상이란 전생(前生)을 뜻하는 말로, 전생의 팔자 또는 업보를 의미하며 삼공신은 인간 삶에 있어서 나쁜 전상과 좋은 전상에 관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sup>2)</sup>

삼공본풀이의 주인공인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지닌 여성성의 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관습적 여성상을 거부하고, 부모의 은덕도 있지만 자기 복으로 산다는 독립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으로서의 의식이 강했던 가문장아기는 결국 부모로부터 쫓겨나지만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되고 개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 마지막엔 거지잔치를 열어 자기를 버렸던 부모와 언니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화해를 통하여 전체성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는 삼공본풀이의 주인공인 가문장아기의 모습에서 여성이 지니고 있는 건강한 여성성과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립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주체적인 자아인식이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가 삼공본풀이를 연구하면서 유사민담을 찾아보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미얀마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널리 퍼져 있는 신화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간이 집단적 무의식에 지니고 있는 원형의 작용이라고 여겨진다.

‘원형’은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을 시공을 넘어 재생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가능성이며 그런 가능성을 지닌 틀이다.<sup>3)</sup> 그런 의미에서 원형은 현대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적 주제들은 역사적인 시간을 넘어서 인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원형의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 신화 속의 여성들은 여성의 원형 상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2) 현승환(1993) :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3 : pp31-32.

3) 이부영(1999)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101.

여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신의 원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삼공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통하여 주인공인 여성의 모습에서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 개성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전형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제주도 무가와 삼공본풀이의 성격

먼저 삼공본풀이가 전해 내려오는 제주도의 무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주도 무가 중 큰 굿에서 다섯 번째로 시연되고 있는 삼공본풀이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무가는 세속적 규범과 가치, 특히 유교적 윤리에 대한 반항과 대결의 의지뿐 아니라, 원초적인 대극 갈등과 해결의 원형을 여러 군데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승과 저승, 남과 여, 생과 사의 대결과 타협이 여느 신화 못지않게 잘 나타난다. 제주도 무가에서는 남신인 마마 신에 대하여 여신인 삼승 할망을 대결시키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킨다. 지역적으로 여성의 권위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무가들이 시대정신의 영향을 덜 받은 신화적 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4)</sup>

제주도 큰 굿의 신화 속에는 모성원리의 강조, 天父地母神적 관념, 지모신과 곡모신을 겸하는 여신적 관념 등이 내재함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신들은 대체로 여성 신들이라는 특징이 있다.<sup>5)</sup>

삼공본풀이를 살펴보면 주인공인 가문장아기는 시련의 여러 과정을 타고난 능력으로 잘 대처하고 스스로 신으로 좌정하기에 이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생불할망, 자청비와 같이 가문장아기는 타고난 여성영웅의 원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제주도 무가에 대한 연구 중 분석심리학적인 연구는 이광자(2013)의 “원천강

4)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광주, pp592-593.

5) 이수자(1989)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2.

6) 이수자(1989) : 앞의 책, p216.

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의 연구가 있다. 원천강 본풀이는 주인공인 ‘오늘’이가 사람들의 팔자를 물어다 그것을 알려 주거나 또는 인연을 맺게 해 주고, 마침내 신녀로의 변환의 과정을 보여준다.<sup>7)</sup>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큰 굿이 열두거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열두거리란 각각 다른 대상 신을 모신 개별의례가 열두 개 있었다는 뜻이다.

본 연구인 “삼공 본풀이”는 제주도의 큰 굿 열두거리 중 다섯 번째 올리는 제의이다. <젯드리><sup>8)</sup>에는 삼공신의 직능이 전상다리라고 나타나 있다. 전상다리란 전상의 다리(橋)로서 전상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sup>9)</sup> 이렇게 보면 이것은 삼공이란 신이 ‘전상을 주관하는 신’이란 뜻이 된다. 「조선무속의 연구」에도 삼공신은 자신이 ‘전상차지’로서 인간에 나왔다 하고 있어 두 자료에 나타난 삼공신의 성격을 종합하면, 결국 이 신은 인간의 전상을 담당하는 신이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sup>10)</sup>

사람들은 삼공신에 대한 제의를 통해 집안의 사기를 내쫓음으로서 좋은 전상을 맞이하여 운명이 순탄하게 풀려가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했다.

큰 굿 집단에서 삼공 제의 앞에서 행해지는 초공제와 이공제에서는 인간의 생과 死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삼공제에서는 인간의 한 평생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다룬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전상, 즉 긍정적인 방향에서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상무가 : 삼공본풀이<sup>11)</sup>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7) 이광자(2013) : “원천강 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한국용역연구원 수료논문.
- 8) ‘젯드리’란 ‘祭’와 ‘드리(橋)’의 복합명사인데, 드리는 ‘橋(교)’의 뜻 외에 ‘순서대로 말한다’ 등의 用例에서 보듯이 ‘순위’, ‘순서’ 등의 뜻이 있다. 따라서 ‘젯드리’란 ‘제의 순서’라는 말이다.(현용준(1986) :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서울, p188.)
- 9) 현용준(1980) :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성남, p63.
- 10) 이수자(1989) : 앞의 책, p127.
- 11) 赤松智城, 秋葉 隆 共編, 沈雨晟 옮김(1937) :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서울, pp429-436.(원문은 부록에 실었음)

- 1) 흥년이 들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살던 두 남녀가 걸식하러 나왔다가 만나서 부부가 됨.
- 2) 딸 셋을 낳았는데 셋째 딸 가문장아가기 태어나면서 가난했던 부모가 부자가 됨.
- 3) ‘누구 덕으로 사느냐?’는 부모의 물음에 천지, 부모의 덕과, 배꼽 아래 선의 덕(배꼽에서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으로 산다고 말한 셋째 딸인 가문장아가 집에서 내쫓김.
- 4) 내쫓긴 막내 동생과 부모사이를 이간시키려 했던 비뚤어진 마음을 가졌던 두 언니가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전환.
- 5) 딸을 내쫓은 부모는 장님이 되고 걸인이 됨.
- 6) 집을 나온 가문장아기는 마를 캐는 마통이를 만나 가난했지만 마음이 착하고 효성이 강한 셋째 마통이와 결혼.
- 7) 마를 캐는 밭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됨.
- 8) 부자가 되니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여 걸인잔치를 열게 됨.
- 9) 장님이 된 부모가 가문장아기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됨.
- 10) 가문장아가가 전생 신임을 밝힘.

## 유화와의 비교

삼공본풀이와 관련하여 유화를 찾으면서 보니 삼공본풀이는 육지의 ‘내 복에 산다’ 계의 민담과 유사하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 까지 널리 퍼져 있는 신화로써 일찍이 학문적으로 활발한 문헌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퍼져있는 ‘내 복에 산다’ 계 민담이 77편에 이르며, 일본에서도 82편임을 보고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5편에 이르고 있다.<sup>12)</sup>

삼공본풀이와 관련하여 유화들을 모두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본 연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미 선행연구에서 정리해 온 자료들을 근거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와 유사한 민담과 문학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내 복에 산다’계 민담의 유화들과 신화로 전해 오는 ‘삼공본풀이’의 차이점을

12) 현승환(1992) : <내 복에 산다>系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4-43.

살펴보면 민담에서는 아버지만 강조되는데 삼공본풀이에서는 부부가 다 나오고 부모가 만나서 결혼하는 데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흉년에 결식하러 나갔다가 서로 만난다. 민담에서는 부모가 부자이고 신분은 정승대감, 왕 등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민담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부자로 시작이 되고 삼공본풀이에서는 배경이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딸을 낳음으로써 부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담에서는 누구 덕으로 사는가에 대한 물음에 '내 복에 산다'고 대답하는데 삼공본풀이에서는 '뱃동아래 선금은 덕(배꼽에서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민담에서는 대체로 주인공이 만나는 남자가 솟구이인데 삼공본풀이에서는 마통이로 나온다. 이는 '무왕'설화와 유사하다.

삼공본풀이에서는 가문장아기의 언니들의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고 있고, 마통이 형제들의 심술 부분이 드러나는데 민담에는 이 부분이 없다. 마지막에 부모를 만나서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눈 뜨게 하고 자신이 전상을 차지하고 나온 신임을 설명하는데 민담에서는 단순하게 대문을 여닫을 때 그 문에서 '내 보옥...' 하고 소리가 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전상신임을 밝히고 전상신의 내력을 읊는다.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가 집에서 쫓겨나올 때 언니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보고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변신하게 하는 내용과 마지막 부분에서 부모의 得明은 민담에는 없는 내용이며, 이는 삼공신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담과 무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민담은 평범한 인간이 운명을 개척해 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가는 神의 내력에 관한 이야기로써 神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여 신격의 우월성을 표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삼공본풀이와 민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1).

현승환(1992)은 한, 중, 일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내 복에 산다' 계 연구를 통하여 이 민담이 민간에서는 민담으로, 문헌설화로는 서동전설과 온달전설로 구전신화로는 삼공본풀이로 전승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중국에서는 신화로, 한국에서는 민담으로 일본에서는 전설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 밝히고 있다.<sup>13)</sup>

서동전설과 온달전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내 복에 산다’의 민담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모두 여성이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며 결국은 남성을 도와 성공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불전설화로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雜寶藏經 제 1孝養篇에 실린 인도의 불전설화인 ‘파사익왕의 딸 선공의 인연’의 이야기는 민담과 신화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아주 유사하다. 이처럼 민담과 무가, 불전설화의 이야기의 전체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유사한 모티브가 오래 전부터 널리 분포되어 왔다는 사실이 심리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인경(2008)은 삼공본풀이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왕>을 비교 연구하였다. 구전으로 전해 오는 민담과 문학작품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지만 결국 문학작품은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연구를 살펴보면 삼공본풀이와 리어왕 두 작품은 모두 주제가 비슷함을 밝히고 있다. 모두가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이 문제임을 제기하고 있는 주제에서 공통점이 드러난다.<sup>14)</sup>

리어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앞부분의 내용은 삼공본풀이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나, 마지막 대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삼공본풀이는 마지막에 부모 형제와 모두 만나는 해피엔딩이지만, 리어왕은 리어왕과 코달리아가 죽는 것으로 비극적으로 끝난다.

“리어왕”의 문학작품은 켈트 신화로 알려진 레어왕(*King Leir*) 전설에 기초하여 셰익스피어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왕”의 문학작품과 “레어왕”의 켈트신화의 줄거리는 거의 유사하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결말이다. “레어왕”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여 레어왕과 코르델리아가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데 반해, “리어왕”은 리어왕과 코달리아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을 맺는 점이 다르다.

위에 소개된 유회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2).

유회들을 비교해 보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13) 현승환(1992) : 앞의 책, p147.

14) 이인경(2008) :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7 : pp3-4.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티브가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민담의 형태로 신화의 형태로 또는 전설로 전해내려 오고 있음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이는 민담이나 신화가 인종과 문화를 떠나 모든 인류에게 국제 통용어처럼 인간 삶의 어떤 기본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떠나 개별적으로 삶의 기본을 체험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삼공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 1. 부부의 만남

많은 민담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재로 시작되는데 반해 본 대상무가는 흥년에 결식하러 나갔다가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두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도입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흥년에 결식하러 나갔다가 만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상황이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 준다.

흥년의 심리학적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 대상무가에서 흥년의 원인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두 남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결식하러 나갔다고 묘사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심리학적 의미는 의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균형과 조화가 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가 깨져서 리비도가 부족한 상태로 초라하고 메마르고 힘이 없는 인격의 상태일 것이다. 타고난 본성을 인식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체면이나 페르조나에 의지해서 살게 될 때 의식과 무의식의 간극이 생겨 의식은 무의식에서 생명의 원천수를 받지 못하고 고갈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결식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집을 나서 둘이 만나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한다는 점이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는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하는 점에서 크게 보면 대립의 화해, 상호작용, 합일을 상징하고 신화적으로는 천상과 지상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런 상징을 토대로 결혼은 자연의 풍요, 다산성을 상징한다.<sup>15)</sup>

15) 이승훈(2009)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서울, p42.

부부가 흉년을 맞아 결식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는 것은 흉년이라는 결핍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생활이 의식의 일방성으로 인하여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되어 삶이 피폐되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해져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행히 이들은 서로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 2. 딸 덕에 부자가 되다

흉년이 들어 결식하러 나선 두 남녀는 서로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어 딸 셋을 낳게 되었다. 부부가 되어 딸 셋을 낳았다는 것에서 이 집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셋이라는 점이 그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첫째 딸은 은장아기, 둘째는 늦장아기, 셋째는 가문장아기로 불리웠는데, 가문장아기가 태어난 후에 부자가 되었다.

세 딸의 이름은 그릇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밥을 담아 준 그릇을 따라 이름을 불렀다. 첫째 딸은 은그릇에 죽을 담아주어서 은장아기가 되었고, 둘째 딸은 늦그릇에 밥을 담아 주어 늦장아기가 되었고, 셋째 딸은 나무 바가지에 담아 주어 가문장아기가 되었다. 딸을 낳고 밥을 담아 준 그릇이 은그릇에서 늦그릇으로, 늦그릇에서 나무 그릇으로 갈수록 값싼 그릇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둘째, 셋째로 갈수록 딸에 대한 태도가 점점 달갑지 않은 태도로 나타난다. 딸의 이름을 그릇의 의미로 부르게 된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그릇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노이만은 ‘그릇’의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성성의 중심적 상징은 그릇이다. 바로 태초부터 가장 최근의 발달 단계에 이르기 까지 여성성의 정수로서의 원형적 상징을 볼 수 있다. 여성=몸=그릇의 기초적인 상징적 등식은 아마도 여성성에 대한 인류(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가장 기초적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다.<sup>16)</sup>

흉년이 들어 결식하러 나선 남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았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흉년에 결식하러 다니던 남녀가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

16) 에리히 노이만/박선화 역(2007)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 파주, p61.

가 결핍된 상황이 강조되고 있고, 이 결핍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는 바로 '딸'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능이 될 것이다.

'딸'은 피폐되고 경색된 전통적 행태를 보상하고 여기에 힘을 줄 수 있는 신생기능이며 새로운 감정기능이다. 그것은 모성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보다 영원성을 지향하는 감정적 가치를 대변하며, 흔히 초속 적이거나 신성 성을 내포한다.<sup>17)</sup>

본풀이에서 세 딸은 가부장적인 의식의 일방성을 일깨워 의식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고루한 전통적인 집단 의식에서 새로운 의식의 태도를 갖게 하는 하나의 新生機能이며, '아버지'의 아니마의 여러 측면을 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딸'은 고루한 시대의식 또는 경직되고 편협한 부권사회의 남존여비 경향을 대상하는 새로운 기능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담에서 딸이 자기희생과 부모에 대한 효성을 통하여 가부장적인 의식의 맹목성을 일깨운 이야기들이 있다. 심청과 바리공주는 버림받고 시련을 겪으며 스스로 희생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였고 장님이 아버지를 눈 뜨게 했으며, 부모를 죽음에서 살려 내는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청은 장님으로 대변되는 가부장적인 의식의 맹목성을 일깨워 눈을 뜨게 하여 의식성을 회복하게 하였으며, 바리공주는 병들어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인 왕과 왕비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집단 의식의 경직된 병폐와 가부장적인 편견을 개선하였다. 심청과 바리공주는 자아의 고루한 집단 의식과의 동일시를 깨뜨리고 새로운 의식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내적활기, 하나의 신생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3. “너희들은 누구 덕으로 사느냐?”의 물음과 답

딸 셋을 낳고 부자가 된 부모는 어느 날 딸 셋을 불러 ‘누구 덕으로 사는지?’ 묻는다. 부모의 질문에 큰 딸과 둘째 딸은 부모님 덕이라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는다. 그런데 뜻밖에 셋째 딸이 하나님, 지애님, 부모님 덕도 있지만 ‘뱃동 아래 선금은 덕’이라고 대답하자 화가 난 부모는 셋째 딸을 내쫓는다. 결국 내 덕에 산다고 대답한 딸은 쫓겨 나게 된다. 여기에서 큰 딸과 둘째 딸은 기존의 질서

17) 이부영(2011)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44.

18)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파주, p261.

와 권위에 잘 순응하는 여성들이다. 그러나 셋째 딸 가문장아기는 첫째는 하나님 덕이요, 둘째는 땅님 덕이요, 셋째는 부모님 덕이요, 넷째는 ‘뱃동아래 선금은덕’이라고 당당하게 자기 주체성을 드러낸다.

가문장아기의 대답은 물론 천지와 부모의 은덕을 먼저 언급하고 자기 자신의 주체를 표현하였지만, 이것은 기존의 가부장제라는 낡은 의식체계에서 개별적 존재임을 주장하는 새로운 의식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문장아기가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전에 천지와 부모의 은덕을 먼저 언급한 것은 타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을 인정하면서 자기 주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무가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주인공인 가문장아기는 왜 하필 ‘뱃동아래 선금은 덕’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여성성과 주체성을 강조했을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막강하다. 아버지는 가족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가정을 지켜주고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가치를 깨우쳐 주는 존재이다. ‘아버지’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용에 의하면 아버지는 종교나 삶의 일반적 철학에서 표현되는 전통적 정신의 구체화이며 의식적 마음과 가치의 세계를 나타낸다.<sup>19)</sup> 아버지는 집단적 의식과 전통정신을 대표하고 어머니는 집단적 무의식과 생명의 원천을 나타낸다.<sup>20)</sup>

가문장아기는 부모의 대답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명확히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선언한다. 부모의 덕도 있지만, 자신의 복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순간 가문장아기는 부모로 대변되는 기존의 관습과 질서와 자신의 주체와 분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인습적인 가치의 영향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줄 새로운 기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여성성의 원형상으로써 가문장아기의 선언은 부모로 하여금 지나치게 인습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만을 강요해온 지나온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문장아기를 껄뽀하게 여기고 집에서 내쫓게 된다.

19) Jung CG(한국 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용 기본저작집 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p67.

20) 이부영(2002) : 앞의 책, p93.

대부분의 민담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문답으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대상무가인 삼공본풀이에서는 '부모'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라는 지역과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민담에서 밝히듯 육지에서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모권적인 성향이 강한 제주도의 본풀이에서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포함한 부모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가 그만큼 육지보다는 덜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지의 대부분의 민담은 남성적인 특성이 강한데 삼공본풀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담이나 삼공본풀이나 전통적인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제주도의 본풀이에서는 덜 남성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의 맥락에서는 정도의 차이이지 제주도에서도 역시 가부장적이고 인습적인 집단의식이 갱신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부모의 물음에 특별히 '뱃동아래 선금은 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뱃동아래 선금은 덕'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는 여성의 신체 중 생식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자궁'을 의미한다. 그럼 '자궁'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자궁은 여성의 몸 중심부에 자리하며, 생명 잉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간 생명의 원형성을 간직하고 있다. 가문장아기의 '뱃동아래 선금은 덕으로 산다'는 대답은 자궁의 힘을 강조한 것이다. 출산력과 함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자궁을 신성시하여 나타낸 말이다. 중국 한의학에서는 氣가 응축된 곳으로 나라의 궁궐에 비유하였으며, 인체의 핵심부이자 생명 탄생의 공간으로서 중심을 상징한다. 자궁은 삶의 시작과 끝-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며, 시초(始初), 시원(始源)을 상징한다.<sup>21)</sup>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이며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문장아기는 '뱃동아래 선금은 덕'이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을 당당하게 주장한다. 이는 가문장아가 소녀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2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서울, pp592-594.

그럼 가문장아가 밝힌 ‘뱃동아래 선금은 덕’의 심리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모로 대변되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질서와 집단 의식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집단 의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가문장아가 ‘뱃동아래 선금은 덕’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한 ‘여성성’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가부장적인 낡은 의식 세계에 새로운 활기와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부모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딸의 주장을 패essim하게 여기고 집 밖으로 내쫓고 만다. 이것은 부모의 완고한 인습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가문장아가의 혁명적인 반항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무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기능이 의식에 수용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억압(축출) 되는 것이다.

그럼 여성은 어떤 존재이며 ‘여성성’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심리학적’이다. 남성은 대부분 ‘논리학’으로 만족한다. 남성은 정확하지 않은 감정이나 환상들이 아니라 객관성과 사실성을 원한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남성이 사실 자체를 아는가보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에게는 단순히 하찮은 일, 거치적거리는 모든 것들이 여성에게는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내용이 풍부한 심리학을 보여주는 것은 여성들이며, 남성이 보고 싶지 않는 그들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뚜렷이 관찰될 수 있다.<sup>22)</sup>

‘여성성’이란 심리학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성성은 아마도 남성적 원리의 지배권 아래서 경시되고 도외시 되고 평가절하 되었던 모든 것이 아닐까?—침묵, 내향적 감정, 수용성, 직관성, 세사적인 기쁨, 구체적인 현실, 손으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sup>23)</sup>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주장해야 한다. 여성은 어떤 여성적 방식으로든지 자신이 이 사회와 문화에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관계에서 더 많이 공감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탁월하고 믿을만한 미적 성향이나 타인을 보살피려는 이타적 욕구를 통한

22) Jung CG(한국 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pp48-49.

23) 로렌스 W. 자피, 심상영 옮김(2006) : 《용심리학과 개성화》,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209.

기여일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자존감을 통하여 여성은 남성과 그리고 자기 내면의 아니무스와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sup>24)</sup>

노이만은 여성적인 이해에 대한 은유를 수태와 임신기간과 출생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지식을 '전하는 것'과 그것이 무르익도록 하는 것은 동시에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동화(assimilation)'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수용은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행동 양식인데, 이것은 수동적인 복종 혹은 표류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여가장적인 의식이 지닌 상대적인 수용성은 행동에 대한 어떤 무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과정에 좌우되는 인식에 기인한다. 모든 중대한 삶의 상황 속에서 여성성은 남성성보다 훨씬 더 본능의 누미노제적인 요소들에 좌우되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남성에게 더 절실히 자각시킨다. 이렇게 볼 때 여성성의 본성과 신에 대한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하고 친숙하다. 그리고 여성성이 익명의 초개인적인 존재와 맺는 유대는 그것이 남성과 개인적으로 맺는 유대 보다 더 원초적이고 깊은 것이다.<sup>25)</sup>

여성성은 이와 같이 새로운 지배원리 또는 새로운 의식을 잉태하는 것이며 바로 가부장적인 집단 의식에 새롭게 잉태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의식을 중재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아기는 바로 가부장적인 집단 의식에 새로운 활기와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성성의 원형상을 의미한다.

#### 4. 가부장아기의 쫓겨남

가부장아기는 집을 나서면서 한 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전형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 폰 프란츠는 민담에서 주인공이 모험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머뭇거림이 없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형상, 즉 추상적인 내면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인공은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도식적인 존재로서 개성화

24) 모린머독, 고연수 옮김(2014) : 《여성 영웅의 탄생》, 교양인, 서울, p111.

25) 로렌스 W. 자피, 심상영 옮김(2006) : 앞의 책, p215.

의 부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sup>26)</sup>

가든장아기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림이 없이 집을 떠난다. 가든장아기가 집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정은 아마도 부정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격의 싹을 발견하여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 곳은 가든장아기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출발을 할 수 있는 보물이 있는 곳이 될 것이며, 보다 더 확장된 의식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부모로부터 보호된 공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격리 되는 것은 가든장아기에게는 큰 아픔이고 시련이지만 개인의 성숙과 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영혼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sup>27)</sup>

민담에서 보면 주인공이 쫓겨나거나 버려지는 주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용은 이러한 ‘버림받음, 쫓겨남’의 주제를 정신의 새로운 탄생에 대한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버림받음, 내버림, 위협에의 노출 등은 한편으로 보잘 것 없는 출발점의 전형적인 형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영웅의 새로운 탄생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표현들은 창조적인 특성을 지닌 정신적 체험을 묘사한 것이다. 그 체험은 아직 인식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는 항상 고통스러운 갈등 상황으로 여겨져 문제시되지만 의식에서는 이 상황에서 걸음으로 보기에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sup>28)</sup>

가든장아기의 쫓겨남은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신의 탄생을 위한 것이며, 이제 가든장아기는 부모의 팔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개성화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가든장아기는 딸 중에 셋째이다. 주인공이 셋째인 것도 의미가 있다. 심리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셋째는 막내로서 가장 어리고 약한 존재이다.

민담에서 주인공은 자주 셋째로 등장한다. 무왕설화에서 서동의 연모의 대

26)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n Fairy Tales*. Shambala. Boston, p17.

27) 모린머독, 고연수 옮김(2014) : 앞의 책, p91.

28) Jung CG(1969) : CW 9-1, *The Psychology of the Child Archetyp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ar285.



상이 되었던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 딸로 등장하며,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구렁이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신랑을 얻는 것도 셋째 딸이다.

폰 프란츠는 민담이나 신화에서 셋째는 전체 이야기 구조에서 네 번째 형상으로서 표면적인 의미와 다른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것은 셋째는 가장 어리고, 때로는 아주 바보스러운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는 열등한 기능이기보다 오히려 원형적인 종교적 상징이라고 해석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열등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인물은 인격의 소외된 부분인데 뒤에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근원적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 무의식적 전체성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9)</sup> 이는 어리고 미숙하고 약한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인격의 싹이 되어 전체성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도 부성의 권위와 통제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인습의 틀을 깨며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당당하게 주장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짐을 싣고 집을 나온다. 가문장아기가 집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검은 암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에스터 하딩에 의하면 암소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달과 관련이 있는 동물로서 주로 달의 여신이 지닌 모성적인 면모가 암소로 재현되며, 달은 그 주기적 변화가 여성의 월경과 임신에서의 변화와 상통하고 또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적인 풍요를 상징한다고 여겨진다.<sup>30)</sup>

가문장아기가 집을 나오면서 암소를 갖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가문장아기의 삶은 여성성과 모성성의 발현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암소가 검은 것은 아직 니그레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문장아기의 새로운 출발은 창조를 위한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금술에서 밝히고 있는 화학적 변화의 과정에서 '그 첫 번째 검은(黑化, 니그레도)'은 원질료(prima materia, 제1의 물질)나 혼돈 혹은 '혼돈의 덩어리'의 속성을 지닌 시초의 상태이며 원래부터 있었거나 원소들을 분해(용해, 분리, 분

29) Von Franz ML, Hilman James(2006) : *Lectures on Jung's Typology*, Spring Pub Inc, N.Y., pp9-10.

30) 에스터 하딩(김정란역)(1996) : 《사랑의 이해-달 신화와 여성의 신비》, 문학동네, 파주, pp90-94.

할, 부패)함으로써 생긴다.<sup>31)</sup>

변화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 검음(니그레도)의 단계는 가문장아기가 부모로부터 쫓겨나는 현실의 답답함이나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문장아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견뎌나갈 때 정확의 단계인 알베도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전 인격적 존재로서의 의식성을 획득하는 루베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나오면서 검은 암소에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은 가문장아기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은 부모의 딸이라는 페르조나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부모의 딸’로서 보호되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가문장아기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자기실현의 기회가 될 것이다.

##### 5. 언니들의 변신과 부모의 몰락

부모는 가문장아기를 쫓아내고 마음이 미안하여 큰 딸과 작은 딸을 각각 불러 동생의 거동을 살피라고 하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은 집을 떠나는 동생에게 거짓말을 한다. 부모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속히 도망가라고 한다. 그러나 부모에게 쫓겨나는 가문장아기는 언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짓 알고 있었다.

가문장아기는 거짓말을 한 언니들을 주술을 부려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전환 시키고 가루 한 줌을 뿌려 부모는 장님이 되게 하고 오방신장을 불러내어 일시에 집을 망하게 함으로써 부모는 거지가 된다. 이로써 가족 전체가 전면적인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삼공본풀이의 다른 이본에서는 부모가 문 밖으로 내닫다가 문지방에 눈이 걸려서 맹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 대상무가에서는 가문장아기가 가루를 뿌려서 장님이 되게 하고 오방신장을 불러내어 일시에 집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가문장아기는 보

31) Jung CG(한국 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p19-20.

통소녀가 아니고 주술을 부릴 줄 알고 부모를 별주는 여성신임을 알 수 있다. 가문장아기의 잘못에 대한 가차 없는 응징의 모습은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부영은 오방신장은 무당이 섬기는 장군神으로 방위(方位)를 지키는 다섯 남신(神)을 의미하는데, 이는 심리학적으로 무당들의 아니무스 원형들이라고 한다.<sup>32)</sup>

가문장아기를 쫓아낸 부모는 재산을 다 잃고 장님이 되어 딸들을 낳기 전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딸들을 낳음으로써, 특히 가문장아기를 낳음으로써 부자가 된 것으로 보아 '여성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부모는 이를 망각하고 기존의 권위와 집단의식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또한 언니들은 스스로의 여성성을 인식하고 독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의 말에 순응하고 동생인 가문장아기를 구박한 후 오히려 앞장서서 가문장아기를 쫓아내는데 일조를 한다. 결국 두 언니들은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네와 말뚝버섯은 각각 동물과 식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다. 언니들은 이제 인간이 아닌 낮은 차원의 존재가 됨으로써 가문장아기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존재가 되어 그 가치가 바뀌게 된다.

먼저 언니들의 변신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체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가문장아기와 달리 언니들은 부모님의 뜻에 순응하며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가문장아기를 멀리 쫓아내는데 거짓말을 하여 가문장아기로 하여금 집을 나서게 한다. 두 언니들의 거동을 벌써 알고 있는 가문장아기는 집을 나서면서 거짓말을 한 큰딸은 지네로 전환하게 하고, 작은 딸은 말뚝버섯으로 환생하게 한다. 먼저 큰 딸이 전환한 지네의 의미를 살펴본다.

지네는 몸은 가늘고 길며, 여러 마디로 이루어져 그 마디마다 발이 있고 독을 분비하며 땅을 기어 다니는 미물이다. 사람들의 발에 자칫 밟혀서 죽을 수 있는 미물로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독이 있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벌레이다. 이처럼 지네는 지하계적인 동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독으로 제거하거나 방어해야 할 대상이었다. 지네의 상징은 그럼 무엇인가?

이부영에 의하면 어느 동물이나 대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이지만 지네의 경우 우리나라의 설화에는 흔히 그 해로운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32) 이부영(2012) : 앞의 책, pp194-195.

있다. 인도에서 지네란 신에 의하여 지상에 죽음을 초래하기 위하여 보내진 것이라든지, 타히티에서 그것은 의사의 그림자로 보는 점이라든지 지네의 속성은 역시 어둠이나 그림자, 죽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는 원형의 파괴적인 면, ‘자기’의 그림자라 할 것이다.<sup>33)</sup>

이부영은 ‘개성화 과정(자기실현)’에서 그림자의 극복이 어렵지만 잘 극복하면 큰 이익이 따르고 그전 상태보다도 더욱 의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림자에 숨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바로 민담에서 나오는 ‘지네’는 인간의 무의식에 도사리며, 정신 기능을 조절하고 인격 변환을 일으키는 자기원형의 그림자, 즉 파괴적이고 반창조적인 측면의 상징이다. 이는 감정표현의 억제와 희생을 강요해 온 우리의 경직된 전통 인습이며,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지배욕, 탐욕이다.<sup>34)</sup>

가문장아기는 왜 하필 언니를 지네로 변환하게 했을까? 지네는 의식에서 경직된 집단의식과 전통인습으로 인하여 억압되어 온 감정의 파괴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여성의 여성성이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억제되면 여성은 타고난 본성이 억압되고 심혼이 남성화되어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감정의 통로가 막히어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향이 되며, 무의식에서는 지나친 권력욕과 지배욕구 그리고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인식할 때 이러한 사로잡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가문장아기가 언니를 지네로 변환시킨 것은 언니의 못된 성품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 성품에 알맞은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네는 땅을 기어 다니는 미물로써 가장 낮은 차원의 존재에 처함으로써 깊이 반성하고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한껏 낮은 존재로 내려가 고통을 겪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지네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땅 속으로, 깊은 무의식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만듦으로써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작은 언니는 말뚝버섯으로 변환시켰다. 버섯은 땅에 박혀 움쭉달싹 못하는 식물이며,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지하계적인 식물로서 하찮은 존재이다. 독립성과 주체성이 부족한 작은 언니를 다른 무엇보

33) 이부영(2011) : 앞의 책, pp113-114.

34) 이부영(2002) : 《그림자》, 한길사, 파주, pp249-251.

다도 버섯으로 전환하게 한 뜻이 있을 것이다. 버섯은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고 다른 생물이 만들어 놓은 양분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버섯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독버섯도 있다. 독버섯은 간장해 · 신경장해 등을 특이적으로 나타내거나 환각을 일으키기도 한다.<sup>35)</sup>

특히 말뚝버섯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풀밭, 목장, 숲 속에 나며, 초식동물의 배설물이나 유기질이 많은 땅 위에 홀로 또는 흩어져 발생한다. 제주도에서는 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큰 갓 버섯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마분(말뚝)이나 우분(소똥)에서 자란다 하여 말뚝버섯이라 한다. 말뚝버섯은 독버섯의 일종으로 검은띠말뚝버섯, 좁말뚝버섯, 목장말뚝버섯이 있으며, 이들 말뚝버섯류는 신경계통을 자극하여 정신이상 상태나 절로 웃는 현상 또는 감각기관의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36)</sup>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그 개인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자칫 미숙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작은 언니를 말뚝버섯으로 환생하게 한 뜻도 앞서 언니를 지네로 환생하게 한 뜻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언니들로 하여금 하찮은 존재, 가장 낮은 존재가 되게 하여 고통을 겪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의식화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으로 무의식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목적의미가 있다.

그럼 부모를 장님이 되게 하고 거지가 되게 한 뜻은 무엇일까 살펴본다.

부모가 장님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가문장아기를 쫓아냄으로써 부모는 더 피폐되고 황폐화되어 의식성을 상실하게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아 장님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눈을 통하여 봄으로써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부모가 이러한 눈을 상실하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장님이 되게 함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pp492-493.

36) 조덕현(2009) : 《한국의 식용, 독버섯 도감》, 일진사, 서울, p196.

으로써 부모를 별주지만 다른 한편 여기에는 숨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외부로 향했던 의식을 저절로 안으로 인식의 대상을 옮기게 한 것이다. 부모는 그동안 부모의 페르조나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가치만을 강조한 나머지 의식의 방향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경직된 의식으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제 완전한 어둠에 빠져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부모는 외부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민담이나 신화에서 장님이 되는 주제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야기 속에서 장님이 되는 것은 대부분 신의 저주와 성인화(initiation)의 시련과 관련이 있다. 많은 민담에서 장님 음악가, 시인, 그리고 가수들은 영감을 받은 존재로 다루어진다. 예언자들도 흔히 장님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神性的 빛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음으로써 외부의 빛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sup>37)</sup>

언니들의 지네와 버섯으로의 변환, 그리고 부모의 장님으로의 변환은 모두가 의미 있는 고통이다. 언니들과 부모는 이 의미 있는 고통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 고통의 진실을 감수함으로써 깊은 내향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그동안의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림자에 사로잡혔던 의식을 회복하여 의식성을 획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6. 마통이를 만남(결혼)

집을 나온 가문장아기는 길을 가다가 마를 캐는 총각을 만나 가까이에 작은 초막이 있음을 알게 되어 초막을 찾아가 그 곳에서 머물게 된다. 초막에는 아들 삼형제와 늙은 어머니(할머니)가 살고 있다. 가문장아기의 집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집에는 여성이 없고, 남자 셋과 나이 들어 아무 능력이 없는 늙은 어머니(할머니)가 있다. 여성성이 결여된 이 집에 가문장아기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Chevalier J, Gheerbrant A(translated by Buchanan Brown J)(1996)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p100-101.

대상무가에서는 주인공이 마를 캐는 총각을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무왕설화에서는 서동이 마를 캐는 총각으로 나온다. '내 복에 산다'의 유회에서는 숲을 굽는 총각으로 나타나며, 온달전설에서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이라는 거지를 만나 결혼한다. 불전설화인 '파사익왕의 딸 선평의 인연'에서는 부왕이 공주를 거지에게 주어 보낸다. 대상무가와 유회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마를 캐는 총각', 또는 '숲을 굽는 총각', 또는 '거지'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다. '마'를 캐거나 '숲'을 굽거나 모두 소박하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과 가까이하는 인물들이다. '거지' 역시 가진 것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남에게 의지해서 먹고 사는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가문장아기는 초막에 사는 마통이 삼형제를 유심히 관찰한다. 가문장아기는 세 아들 중 삼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타인에게도 호의적이며, 어머니에 대해서도 효성이 지극한 막내 마통이를 선택하여 자신의 배필로 정하여 잘 씻기고 옷을 입힌 후 인연을 맺게 된다.

심리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초막의 세 아들은 가문장아기의 아니무스상으로 다양한 아니무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세 아들 중 막내아들을 선택한다. 막내아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가문장아기가 마통이 집을 찾아갔을 때 위의 두 형은 가문장아기를 홀대했지만 막내아들은 가문장아기의 일행을 반기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볼 때 새로운 의식성의 담지자로서 가문장아기의 새로운 남성성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가문장아기의 무의식의 내적 인격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대상무가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문장아기의 가족은 부모와 딸 셋이고, 마통이의 가족은 늙은 어머니와 아들 셋이다. 삼 자매와 삼형제의 대칭 구조를 이룬다. 여기에서 막내 딸 가문장아기와 막내아들 마통이가 결혼을 한다. 바리데기 공주에서도 바리공주가 '일곱 번째 공주'로 태어나 버림을 받고, 거인 무상신선을 만나 봉사하다가 결혼하여 '아들 일곱'을 낳는다. 이 무가에서도 '일곱 공주'와 '일곱 아들'이 대칭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대칭구조를 이루는 것은 전체를 이루고자 하는 민담구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상무가에서 가문장아기가 마통이를 만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태도는 아주 능동적이며, 그 기준은 '옳과 효성'이다. 선택의 기준은 매우 단순하고 아무런

갈등도, 경쟁도 없고 망설임도 없다. 이것은 여신으로서의 전지전능함의 일단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제주도 문화의 모권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무가에서는 가문장아기나 막내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결국 그동안의 인습적인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작용하는 대상이다.

아니마가 본래 개인적인 섬세한 감정, 자아의식을 넘어서선 예감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아니무스 또한 창조적 싹을 지니고 있다. 융은 그것이 곧 ‘영감 있는 여인(femine inspiratrice)’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조상들이 남성으로부터 경험한 모든 경험의 침전이며, 또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존재이기도 하다. 물론 남성적 활동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언어라고 이름붙일 만한 것을 나오게 한다.<sup>38)</sup>

아니마가 모성적인 에로스에 해당한다면 아니무스는 부성적인 로고스에 해당된다. 실제 의미는 에로스의 맺는 기능과 로고스의 구별하는 기능을 지칭한다.<sup>39)</sup>

초막집 세 아들 중 셋째 아들은 가문장아기의 내적인격인 아니무스 상으로서 가문장아기로 하여금 구분하고 구별하는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융은 개성화과정에서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의 결합은 궁극적으로는 대극의 융합이고, 이는 곧 전체성으로서의 자기실현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연금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써, 연금술에서 추구하는 바로 ‘온전한 인간(homo totus)’이다. 이러한 전체성을 위한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가장 긴 길(longissima via)’로서 곧은길이 아니라 대극을 이어주는 구불구불한 길이다.<sup>40)</sup>

분석심리학적으로 결혼은 ‘대극의 융합’으로서 전일성, 온전성의 상징이라 보기 때문에 민담이나 신화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격성숙의 목표가 달성

38) Jung CG(1963) :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bten*, p104. 이부영(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파주, p73. 재인용.

39) Jung CG(1951) : *Aion*, Zürich, Rascher Verlag, p32. 이부영(2001) : 앞의 책, p82. 재인용.

40) Jung CG(2002) : 앞의 책, pp13-14.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무가뿐만 아니라 '내복에 산다' 류의 대부분의 민담에서는 모두가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들이 주인공이며, 신랑으로 나오는 남성들은 어딘가 어수룩하고 부족한 대상들이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주인공들은 여성으로서 남성적인 부분이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신랑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인 여성들은 모두 똑똑하고 주체성이 강한 여성으로써 여성에게 부족할 수 있는 이러한 거칠고 자연에 가까운 남성적인 측면을 잘 수용하고 대면할 때 그들을 훌륭한 장군으로 또는 왕으로, 선비로서의 변환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무의식상태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의 의식화를 통한 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폰 프란츠는 집단 의식이 에로스와의 접촉을 상실하고 경직된 지배원리에 갇혀 있을 때, 어수룩하고 바보스런 측면이 여성적인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의 태도로써 영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41)</sup>

이부영은 '우부현처설화(愚夫賢妻說話)'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이 어리석은 남편을 도와 부자가 되거나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 남성에게 남성이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그를 보다 높은 경지로 인도하는 것은 여성의 특질이라고 언급하며 여성의 건전한 아니무스가 남성들 속에 잠자는 창조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그럼으로써 인류 문화에 끼친 여성의 공헌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고귀하고 부유한 여성은 이와 대조되는 어리석고 미천하고 가난한 인격을 무의식에 갖고 있어서 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 속의 이러한 내적인격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우부현처설화는 이런 뜻도 나타내고 있다. 愚夫는 그러한 여성의 열등기능, 혹은 무의식상태, 즉 소박한 자연(숫장이),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고 부연한다.<sup>42)</sup>

가문장아기는 아니마원형상이다. 대상무가는 신화로써 가문장아기가 여신이지만 이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에 걸쳐 있는

41)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64.

42) 이부영(2011) : 앞의 책, pp246-247.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대상무가에서 때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 신적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여신이지만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문장아기가 아버지의 아니마 원형으로서 아니마와 아버지의 짝으로서 만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문장아기가 神이면서 마통이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다. 마통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늙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소박한 남성성을 만나서 변화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목적의미가 있다. 이렇듯 神은 본래 그렇게 존재하면서 의식에 영향을 주어 전체가 되게 하는 존재이다. 심청전에서도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물에 빠져 죽지만 연꽃에 다시 태어남으로써 왕비가 되어 결혼을 한다. 이는 융합해서 하나가 되어 의식에 영향을 주어 집단의식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 금의 발견으로 부자가 되다.

가문장아기는 초막의 세 아들 중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동안 남편이 마를 캐는 곳에 구경을 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은 마통이가 자갈이라 하여 버린 것을 살펴보니 모두 황금이었다. 가문장아기는 작은 마통이가 돌인 줄 알고 버렸던 금덩이를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작은 마통이는 금을 눈앞에 두고도 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가문장아기는 이를 알아보고 활용하여 부자가 된다. 가문장아기가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금과 돌을 구별하는 모습은 가문장아기의 여신으로서의 삶에 대한 지혜와 안목을 엿볼 수 있다.

마통이는 ‘마를 심고 가꾸는 사람’으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별히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친화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문명의 산물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하다. 그래서 아직은 무의식성, 무분별성, 소박함 속에 있다. 또한 돌덩이로 착각된 금이 마를 캐는 곳에 있었다는 것은 뜻이 깊다. 다른 유화에도 ‘금’은 자연을 발굴하는 작업이나 장소에서 발견된다. 이는 무의식과의 작업이 보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통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보물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무거나 '내 복에 산다'의 유화들에서는 모두 주인공 여성이 남성에게 '금'이 있음을 가리켜 주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아니무스의 의식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여성 주인공이 만나는 남성들은 모두 소박한 무의식성 속에 있는 아니무스이다. 이러한 아니무스를 인식하는 것은 바로 고귀한 것에 대한 인식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그럼 가문장아기와 선화공주가 발견한 '금'이 갖는 심리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본다.

금은 고대사회에서 고귀하고 영원불멸의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종교나 신화에서는 태양 또는 왕이나 신을 상징한다. 금과 관련된 사물은 모두 신성, 명예, 위엄을 나타낸다. 이러한 금의 성질 때문에 금은 많은 사람에게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대 인도의 경전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금은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숭배되었으며 영원과 영생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중세에 와서 연금술을 발달시켰고 또 당시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비속한 금속을 녹슬지 않는 영원한 금속인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현실에서의 이탈과 정신적 향상의 욕망을 상징하였고 연금술사들은 금을 액체 'aurum potabile'로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은 만능약, 미약, 노화 방지약으로 통했다.<sup>43)</sup>

융은 연금술사들이 비밀스런 원질료 속에 '언기 어려운 보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인간 안에 신을 인식하게 하는 황금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미카엘 마이어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백만 번 돌면서 대지 안에 황금을 만들어낸다. 태양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상을 대지에 찍어 넣는다. 이것이 황금이다. 태양은 신의 상이고 심장은 대지 속의 황금처럼 인간 안에 있는 태양의 모상이다. 또한 지상의 신이라고 부른다. 신은 황금에서 인식된다. 황금에 나타난 신상은 아마도 "황금의 혼"일 것이다. 황금의 혼은 평범한 수은에 들어가 수은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sup>44)</sup>

금은 여러 번의 제련과정을 통해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부식되지 않는다. 태양처럼 빛나면서 순수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4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p194-198.

44) Jung CG(2004) : 앞의 책, pp154-157.

는 성질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에 깃들어 있을 영혼의 정수, 혹은 영원성에 대한 동경을 투사하게 됨으로써 금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질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 8. 부모와의 상봉을 준비(결인 잔치)

살림이 좋아지면서 가문장아기는 부모 생각이 간절해진다. 아버지는 남성원리로써 태양, 법과 질서를 상징하고 전통적으로 집단의식을 상징하며 도덕적 권위를 상징한다. 어머니는 ‘모성적인 존재’로서 자애로우며, 돌보고,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영양을 공급해 주는 제공자이며 무의식을 상징한다. 바로 부모는 정신과 육신의 근원이 되는 근원체로써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가문장아기가 부모를 찾는 것은 어린이로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의존심의 발로가 아니라 전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미가 있다.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은 비극적일 정도로 숙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융은 말한다. 그들은 진정 온갖 운명이 얽힌 실타래의 근원인 아버지요 어머니로서 오래 전부터 세상에 알려졌던 신의 짝(Gotterpaar)이다.<sup>45)</sup>

부모는 신의 짝으로서 자기 자신의 근원이 되므로 가문장아기는 결국 마지막에 부모를 찾게 된다. 가문장아기가 부모를 찾는 심리학적 의미는 한 개인의 개성화과정에서 ‘의식’을 획득한 정신이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성취하고 전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자기원형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노이만은 〈의식의 기원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디서라는 근원적 질문, 즉 근원에 관한 질문이면서 시초에 관한 질문에는 하나의 대답이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그 자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 하나의 대답은 ‘원’이다. 그리고 두 가지 의미는 자궁(모태)과 부모이다. 우로보로스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둥근 것, 즉 근원적 모태나 자궁으로서 등장하지만, 또한 남성-여성적 대립의 통합으로서, 끊임없이 서로 함께 공존하여 연결되어 있는 부성과 모성인 원상적 부모로서 등장한다. 원상적 부모(primordial image)는 모든 세계와 영원한 삶에 관한 근원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생성하게 하는 완전함이고,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수태하고, 혼자서 생산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

45) 이부영(2001) : 앞의 책, p95.

아나는 현존재인 것이다.<sup>46)</sup>

가문장아가 집을 나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마둥이를 만나고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가문장아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내쫓았던 부모를 찾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여성적 대립의 통합으로써 원형적 부모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성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상무가에서 주인공인 가문장아기는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어 마침내 부모와 자매를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자매와의 화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부모·자매로 나타난 그림 자측면이 아직 해결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징벌을 풀어 주고 회개를 통한 반성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으로 사느냐?'는 질문에 부모의 은덕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효'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석 달을 걸인잔치를 연다. 가문장아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연 '잔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잔치는 민담에서 흔히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으로 묘사된다. 잔치는 사람들을 격의 없이 하나가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늘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자리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립하고 풀어내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우러지고, 하늘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리이다. 바로 변환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함께 융합이 되는 자리이다.

가문장아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잔치를 여는 것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장애(장님)를 가진 사람(불특정 다수)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은 무의식의 특수한 콤플렉스를 찾아내려면 비슷한 콤플렉스에 관계되는 것들을 우선 전부 모아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특수한 콤플렉스를 찾아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문장아가 마지막으로 부모를 만나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본다.

46) 에리히노이만, 이유경 옮김(2010) : 《의식의 기원사》,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p41-47.

인생의 전반기는 ‘의식’을 획득하고 ‘의식’의 주체가 되어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서 독립된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인 청소년기에는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시기로서 만약 삶을 두려워하거나 삶에서 물러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를 지나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의 전반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아를 강화하고 사회적 행동 규범을 배우고 적용하는 페르조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가문장아가 부모로부터 자기 복으로 산다고 말하고 집을 나오는 것은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문장아가 집을 나와서 셋째 마통이를 만나 결혼을 하고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어 부모를 찾는 것은 인생의 후반기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개별의식의 주체로서 성인기에 이르면 자칫 의식의 근원인 무의식과 멀어질 수 있으므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위하여 무의식의 인도자인 여성의 내면인격인 아니무스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가문장아가 부모를 찾는 것은 부모에게 돌아가는 유아적 퇴행이 아니고 부모와의 새로운 관계(의식된 관계)를 정립하여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며 개성적이며 보편적인 인간 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9. 부모와의 재회와 개안

가문장아가 부모 생각이 간절하여 걸인잔치를 열어 부모를 찾고, 부모는 눈을 뜬다. 이로써 가문장아기와 부모와의 적대적인 관계는 해소된다.

그럼 먼저 ‘눈’이 지니는 심리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눈은 全知, 일체를 꿰뚫어 보는 神性, 직감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을 뜻한다. 플라톤은 모든 인식 가운데 가장 태양적인 것은 눈이라고 했다. 눈은 또 신비의 눈, 빛, 각성, 지식, 정신, 경계, 보호, 안정, 목적을 나타냄과 동시에 가시적인 것의 한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천 개 혹은 만 개나 되는 태양신의 눈은 별, 즉 밤의 문으로 모든 것을 앎, 불침번, 오류가 없음을 뜻한다. ‘마음의 눈’ 즉 心眼은 영적 지각, 광명, 지적 직관을 말한다. 눈은 또 방추형의 여러 상징과 원형의 남성 상징이 조합된 것으로 남녀추니를 상징한다.<sup>47)</sup>

47) 진쿠퍼, 이윤기 옮김(2003)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p123.

대상무가에서 부모는 딸을 만난 기쁨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님이 된 부모가 딸을 보고 싶은 강한 욕구, 바람, 그리움이 딸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돌연 눈이 떠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부영은 한국 민담에서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서 자연스런 본능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국민담에서 '악'을 물리치는 대처양식은 자연스러움, 소박한 감정표현, 무위(無爲)의 위대함, 인내와 성실함의 미덕, 위대한 체념과 포기, 자기희생과 용기 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sup>48)</sup>

심청이 장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의식을 개혁하여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과 개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깊은 감정적 고뇌와 외로움을 겪으면서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집착과 낡은 자아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무의식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해 주고 있다.<sup>49)</sup>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무의식성에서 '의식성'의 회복이다. 불교에서는 눈을 뜨는 것을 '깨달음'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깨달음은 '道'의 깨달음이다. 그럼 道란 무엇인가? 도덕경 1장에 보면 '道는 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며,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빌헬름은 도를 '의미(Sinn)'라 번역하였고 용은 이런 해석을 대단히 환영하였다. 이부영은 이를 '뜻'으로 번역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했다. 용은 '의식된 길' 또는 '의식하고 가다'라 풀이한다. 이부영은 우리가 도를 의식(자각)된 길, 또는 방법으로서 분리된 것을 합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개념이 지니고 있는 심리학적 의미에 아마 상당히 접근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극의 의식화, '방향전환'의 문제에서는 무의식적인 생명 법칙과의 재결합이 중요하며, 이 결합의 의도는 자각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 중국식으로 말해서 도의 완성이다. 도의 완성이란 바로 자기실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련의 과정, 즉 의식의 해리, 객체로부터의 구별 과정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sup>50)</sup>

48) 이부영(2011) : 앞의 책, p184.

49) 이부영(2001) : 앞의 책, pp271-272.

50) 이부영(1999) : 앞의 책, pp392-394.

그러므로 눈을 뜬다는 것은 그동안의 무의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의식성을 회복하고 통찰가능성의 힘이 갖추어져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것이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은 그동안의 인습적이고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이 변화되고 전체정신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다.

### 10. 전상차지는 어떤 것인가?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만나 자신이 전상차지로 인간 세상에 왔음을 알린다. 부모님이 부자가 된 것도 가문장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모가 ‘전상차지’가 무엇인지 묻자,

전상은 다름이 아니오라 인간세상 장사하는 것도 전상이요, 목수일도 전상이요, 농사 지음도 전상이요, 술 먹음도 전상이요, 담배 먹음도 전상이요, 노름함도 전상이요, 밥 먹음도 전상이요, 인간살이 모든 일이 전상입니다. 전상군졸은 이러 하옵니다. 학겜미, 족겜미, 단단춘이 옥년네. 단년네, 허와택이, 서천득이, 막택이, 서택이, 청사록, 백사록, 나무광대, 정적궁, 불도신면, 시왕수미, 대사록 남산 들머리입니다.

먼저 전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다.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을 보면 ‘전상’이란 ‘전생(前生)’을 말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그러한 일을 하는 마음, 즉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음주, 도박, 절도 등 나쁜 일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마음,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신을 말하기도 한다. ‘차지’라는 말은 ‘맡은’이라는 의미이다. 이 ‘전상’이 붙으면 그 행위를 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없다. 農·工·商 등 갖가지 직업을 택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전상 때문이라고 해석한다.<sup>51)</sup> 이 설명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콤플렉스’를 연상시킨다.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상차지 神’이란 심리학적으로 집단적 무의식에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삼공본풀이는 그런 존재 ‘운명의 여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神은 우리 몸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神이라 부르는 神格이 우리의 마음속에

51) 현용준(1980) : 앞의 책, p192.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무의식 특히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 여러 원형상들을 전상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생이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적인 원형 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부영은 원형의 작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형의 작용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개체나 집단의 정신 상황에서 그것이 요청될 때 무의식 속에 배정되며 어떤 형태로든 의식에 나타나 체험된다. 그 경우란 대개 의식의 일방적인 발달과 분화, 무의식에 대한 경시로 말미암아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자아의식의 모체로부터의 단절, 하나의 근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상작용으로 원형의 작용이 나타난다. 이 경우 원형상은 흔히 예시되며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에난티오드로미(Enantiodromie)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의 전환기나 정신적 위기 뿐 아니라 한 시대의 위기에서도 나타난다. 원형은 마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저승의 사자같이 목적을 가진 기능이다.<sup>52)</sup>

원형은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집단적 무의식의 층은 많은 원형으로 구성된다. (중략) 원형이 일으키는 감정은 평범한 감정이 아니라 누미노즘Numinosum(신성한 힘)을 내포한 감정 또는 충격이다. 그것은 초인적이며 또한 비인간적인 충동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제신(諸神)의 세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53)</sup>

전상차지신이란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다양한 원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상은 우리 무의식의 깊이에서 자아에게 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미가 있다. 이는 개인에게 인생의 전환기나 정신적인 위기나 한 시대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주의 깊게 관조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원형은 강한 정동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의식의 변화란 새로운 자기인식을 획득하여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무가에서도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집단적 무의식을 갱신하기 위하여 가문장아가 탄생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부모는 장님이 되는 시련과 고통을

52) 이부영(1999) : 앞의 책, p109.

53) 이부영(1999) : 앞의 책, p100.

겪음으로써 깊은 내향화의 시간을 통하여 의식성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이 타고난 본성(여성성)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뜻과 인습적인 가치에 순종하기만 했던 언니들도 지네와 말뚝버섯이라는 미물과 식물로 전환되어 그림자에 사로잡히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냄으로써 자기인식을 획득하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마지막 부모와 언니들과 화해를 함으로써 모두가 전체가 되도록 한다. 이는 한 개인으로서 새로운 자기인식을 획득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대정신, 시대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상무가는 신화로서 神의 이야기이다. 神은 완성된 존재로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지만 이를 민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문장아기를 아버지의 아니마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성적인 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 전개를 보면 아니마 원형인 가문장아기가 처음에는 부모에게 배척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장님이 되는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겪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가문장아기가 이 세상에 온 ‘소명’을 갖고 온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여신으로서 천상의 존재이다. 천상의 神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와 언니들에게 버림받고 마통이를 만나 결혼하고 마지막엔 부모와 언니들과 화해함으로써 전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문장아기가 인간의 존재로 이 세상에 온 의미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본다.

가문장아기가 여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무의식에 있는 아니마의 원형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의식화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성성의 의식화이다. 여성성의 의식화는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상무가를 살펴보면 고루한 가부장적인 집단의식에서 창조적인 아니마는 배척을 받고 많은 시련을 겪으며 분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장님이 되고 걸인이 되며 미물과 식물로 전환되어 내향화의 긴 시련을 겪은 후 마침내 전체가 화해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집단의식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상무가는 여성의 자기실현이 집단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개성화 과정을 나타낸다.

## 나가는 말

‘나’를 찾는 여정은 결국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아와 그림자, 아니무스(아니마)와의 만남과 아니무스(아니마)의 도움을 통한 자기(Self)의 실현이라는 개성화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응은 인격의 발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격이란 의식하며 도덕적 결단으로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는 결코 발달할 수 없다. 의식적 도덕적 결단이 없이 인격 발달의 과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자기 자신의 길이 아니라 인습을 선택하며, 따라서 자신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성을 발달시키고 자기 자신의 전체성은 희생시키게 된다. (중략) 역사적인 인격의 위대함은 인습에 절대 굴복함이 아니라, 반대로 인습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에 있었다. 그들은 잘 알려진 목표를 가진 평탄한 길을 놓아두고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가파르고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무의식적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오도록 자극하는 것은 소명(Bestimmung)이라고 부르는 것, 운명적으로 무리하고 습관적 길들로부터 해방되도록 밀고 가는 비합리적 요인이다. 참된 인격은 언제나 소명에 있으며, 소명(召命)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sup>54)</sup>

가문장아기는 가부장적인 인습적인 삶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주장하며 ‘여성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자신의 전 인격을 실현하는 자기실현의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전체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의 일방성에 치우친 집단성에 어울리는 인습적인 삶에 안주한다. 그러나 인습적인 삶에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안주하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명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변화는 ‘나로부터’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잘 살피고 관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

54) Jung CG(2004) : 앞의 책, pp19-21.

다. 그리고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된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그리고 자신의 전체를 꽃피우는 삶이 되도록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로렌스 W. 자피 지음/심상영 옮김(2006) : 《융심리학과 개성화》,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모린머독/고연수 옮김(2014) : 《여성 영웅의 탄생》, 교양인, 서울.
- 박영선(2010) : “민담 <내 복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42, 한국분석심리학회.
- 에리히 노이만 저/박선화 역(2007) :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 서울.
- 에리히 노이만 지음/이유경 옮김(2010) : 《의식의 기원사》,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 에스터 하딩(김정란 역)(1996) : 《사랑의 이해-달 신화와 여성의 신비》, 문학동네, 서울.
- 이광자(2013) : “원천강 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한국융연구원 수료논문.
- 이부영(1993)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_\_\_\_\_ (1999) : 《그림자》, 한길사, 서울.
- \_\_\_\_\_ (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 \_\_\_\_\_ (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_\_\_\_\_ (2011)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 \_\_\_\_\_ (2012) :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 이수자(1989)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훈(2009) :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서울.
- 이인경(2008) :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7.
- 조덕현(2009) : 《한국의 식용, 독버섯 도감》, 일진사, 서울.
- 진쿠퍼/이윤기 옮김(2003)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1.2》, 동아출판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권》, 한국정신문화원, 서울.
- 현용준(1980) :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서울.
- 현승환(1992) : <내 복에 산다>系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승환(1993) :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 赤松智城, 秋葉 隆 共編, 沈雨晟 옮김(1970) :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서울.
- Jung CG(이부영의 옮김)(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 \_\_\_\_\_ (한국 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 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 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융 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 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융 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 \_\_\_\_\_ (1968) : CW 9-1, *The Psychology of the Child Archetyp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Chevalier J, Gheerbrant A(translated by Buchanan Brown J)(1996)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n Fairy Tales*, Shambala, Boston.
- Von Franz ML, Hilman James(2006) : *Lectures on Jung's Typology*, Spring Pub Inc, N.Y.

표 1. 삼공본풀이와 민담의 내용별 비교

내 용	삼공본풀이	민 담
1. 부모가 가난	○	× (부자)
2. 부모와 딸들의 문답	○	× (부녀의문답)
3. 셋째 딸이 쫓겨남	○	○
4. 언니들의 변신과 부모가 맹인	○	×
5. 부모가 거지가 되다	○	○
6. 마통이, 숲구이총각을 만나다	○	○
7. 금을 발견하다	○	○
8.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	○
9. 걸인잔치와 개안	○	×
10. 부모와의 재회	○	○
11. 전상차지 신	○	×

표 2. 유화의 비교

유 화	여주인공	갈등관계	상대남성	결 과
1. 내복에 산다(민담).	셋째 딸	부녀	숲구이총각	부모를 모심
2. 서동전설	셋째 딸(선화공주)	부녀	마통이	해피엔딩
3. 온달전설	평강공주	부녀	거지	해피엔딩
4. 불전설화	선공공주	부녀	거지	해피엔딩
5. 리어왕(문학작품)	셋째 딸(코달리아 공주)	부녀	왕자	부녀의 죽음
6. 레어왕(켈트신화)	셋째 딸(코르델리아 공주)	부녀	왕자	왕위에 복원
7. 삼공본풀이(무속신화)	셋째 딸(가문장아기)	부모녀	마통이	부모자매와 재회

Shim-Sŏng Yŏn-Gu 2015, 30 : 1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Shamanistic Myth “Samgong Bonpoori”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Myung-sook Hwang \*

This thesis discusses and analyzes Jeju island's shamanistic myth “Samgong Bonpoori”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Similar to the “I live on my fortune”-type folktales discovered in the Korean mainland, “Samgong Bonpoori” is such a widespread myth that similar folktales are found not only in East Asian regions,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but also in Ireland. The essence of the story is as follows; One day, a father asked his three daughters whose fortune they lived on. The first two daughters claimed that they owe their lives to their parents. However, the youngest daughter, Gameunjang-agi, replied, against his expectation, that “I live on my own fortune,” and showed her fortune and virtue were physically embodied in the line drawn from her genitals to navel. Her answer enrages his father so fiercely that she was expelled and forced to embark on a journey with no one but a black cow carrying food to accompany her. In retaliation for telling lies against her, Gameunjang-agi transformed her two sisters into a centipede and a mushroom, while her parents were turned into beggars afflicted with blindness. Afterward, Gameunjang-agi wandered around the country and eventually found love with a Chinese yam digger. Not long after, they got married, and as a couple, they stumbled upon roots of gold in fields, which brought them an incredible amount of wealth. After this miracle has happened, Gameunjang-agi began to wonder about the status of her parents and decided to organize a party for all the beggars and the blinds in the country. She eventually found her parents and got a chance to reconcile with her sisters. The story ends with her parents regaining their eyesight and Gameunjang-agi reestablishing herself as the “Goddess of Providence.”

“Samgong Bonpoori” is a myth about a God. A God is ontologically a supremely perfect being; however, in this thesis, it will be discussed as a part of a folktale. Gameunjang-agi can be seen as the anima archetype of the father, which reveals the process of a paternal consciousness being transformed over time. At first, her parents deny Gameunjang-agi. However, after years of suffering from blindness, they regain their eyesight and finally recognize their daughter. This signifies that Gameunjang-agi is a being that has come into the world for a certain “purpose.” Gameunjang-agi embodies the creative function of “femininity” that can renew the existing collective consciousness embedded in the patriarchal system. Such recognition of femininity matters to men to a great degree as well as to women. Without knowing their true nature (femininity), the two sisters submit themselves to their parents and conventional values. Not until they suffer from being transformed and captured into small and insignificant beings, a centipede and a mushroom, which symbolize their shadow, they fail to develop their self-awareness. Meanwhile, by reconciling with her parents and sisters--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reuniting the family--Gameunjang-agi turns out to be a figure that can reveal what it truly means to have self-awareness and achieve Self-realization. In conclusion, this story illustrates that recognition of femininity matters to men to a great degree as well as to women, and women’s Self-realiz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revitalizing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embedded in the patriarchal system.

**KEY WORDS** : Shamanistic myth · Anima archetype · Femininity · Shadow · Self-realization.

---

*\*Won Buddhism minister of Junggu Won Buddhism Temple. Jungian Psychoanalyst*



## □ 부 록 □

할님수사는 옷상실에 살고/구에궁전너설부인은 알상실에 살아서/서로 흥년이 되니  
 결식하러 나갔다가/서로 맞나 인연을 맺고/부부가 된 후에 아해를 나었는데/큰 딸은  
 인장아기,/셋딸은 늦장아기라/끝엿딸 감은장아기가 나온 후에 부자가 되니/큰딸셋딸  
 적은 딸을 불러노코/너의덜은 누구덕으로 사느냐 무루니/큰딸셋딸하는 말이/부모님  
 덕으로 삼니다하니/깃득하다 칭찬하고, 말젯아기 대답하는 말이/첫째덕은 하나님 덕  
 이요,/둘째덕은 따님 덕이요,/셋째덕은 부모님 덕이요,/넷째덕은 벵동아래 선금은 덕  
 이라 하니/요망스러운년이라 하고/감은 암쇄에 의복행장실허노코/게집하님부쳐서 쪼  
 차내니/문밧그로 나가다가/참아 떠나기 어려운 듯이서서/부모님거동보더니/부모님이  
 참아 미안하야, 큰딸 불러 하는 말이/문밧게 나가서 적은 아기 거동바라/사실 진정 가  
 고 있는가 보고 와서 일러라 하니/큰 딸아기 나가더니, 적은 아기 보고 하는 말이/어  
 서 속히 도망가라, 너를 죽이레 나오람찌 하니/큰 딸아기 납분몬니미여하야/도술 부  
 려 지네로 화신시키고,/셋딸 불러 하는 말이/문밧게 나가서 적은 아기 거동바라,/참아  
 진정 떠나는가,/셋딸 아기 하는 말이/부모님이 네를 죽이레나오람시니,/어서 속히 도  
 망하라 하니,/적은애기 생각에, 셋딸아기 몽니미여하야/말똥버서화신시키고, 가루한  
 좀 뿌려노니/부모님 눈 폐명되고, 오방신장 불러내연/이집 일시 망케하야/적은 딸아  
 기 나가다가, 마파고 있는 총각을 보고/하님을 시겨 인간 사는 곧 이어디 있느냐 무르  
 니/별 고약한 년 처음본다 욱설만 하고/다시 길을 가단보단/마파는 총각 또 보이니/인  
 간 사는 곧이 어디 있느냐 무르니/별 고약한 년 처음 본다 욱만 하니/할 일 없이 지나  
 다가 보니/마파는 총각 다시 보이거늘/인간 사는 곧이 어디 있느냐 무르니/친절히 데  
 답하는 말이/이알엿넉해가고 보면/초막 사리 늙은 할망 사는 곧이 있다 하니/거귀 찾  
 고 드러가서/오날 밤 유숙하고 가겟습니다 하니/초막사리 집이 좁고 사람이 만나 잇  
 서서/유숙하기 곤란하오나, 어서 잤다가갑시오 하니/그날 밤 유숙하게 되옵는데/마파  
 레갓던 아덜 형제가 드러와서 하는 말이/먹일 것도 없고 집은 좁은데/쓸데업시 손임  
 을 멧쳤다 하며 /모친 전에 원망만 탕탕 말을 하며/마를 삶아서 한잔 동은 떠여서 자  
 괴네 먹고/목아지는 어멍맥이고, 출리는 손임의게 주니/참 고약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잇을 때/말젯아달 마파고 와서/엇던 손님 드렸습니까 무르니/어멍말삼이/길가다가 날  
 이 접으러 드러왔다 하니/잘 유숙케 하였습시다 하고/마를 삶아서 한잔동은 모친 전  
 올리고/옷묵은 손님에 되리고,/출리는 자괴가 먹으니/그 마음씨 고흔 것을 칭찬하고/

아기씨 밥을 지어서 주인에게 모다 데접하고/그날 밤은 주인 말젓아덜을 불러서/잡  
 목욕시키고 의복 한 벌 내여 입히고/부부가 되기로 인연을 맺져서 사니/큰 아달들은  
 매우 불러히 생각하야/우리도 저런 각시나 어덩/사라 보왓스면 부뤄하옵내다/하를 날  
 은 말젓아달 마파던 밧에가고/마파젠돌일웃곳마다/황금이 가득가득 하여시니/파다가  
 피니 일시에 거부가 되니/아기씨 부모궁 맛나고 심흔 생각 간절하야/필경 결식하레도  
 라당겸스리니/걸인잔치나 하리라 하니/연 석달을 걸인자최하단보난/하를 날은 폐맹된  
 두 로인이 드러왓삽난데/분명한 아기씨 부모이라/한쪽으로 인도하여 두엇다가 밤이  
 되니/사랑으로 청하야 안치고/,전후 사실 모다 말하야/제가 말젓아기 감은장아기씨임  
 니다하니/이게 무슨 말이나. 어느게 내딸이나/깜짝 놀래여 할 때에/폐맹된 부모 눈이  
 펼쳐 깨여 일월이 밝으니/서로서로 김버하며,/애기씨 하는 말이/인장애기 셋장애기  
 두 형님은/마음이 납바서 죄를 바다, 큰 형은 지내로 환생하고/셋형은 말뚱버섯으로  
 환생하였슴니다./저는 전상차지로 인간의 나왓사오니/부모님이 부자로 살게 된 것도/  
 제가 잇기 때문이엿슴니다 말을 하니/부모궁 말삼이, 전창차지는 엿뎐 것이나 하니 /  
 전상은 다름이 아니오라 /인간세상 장사하는 것도 전상이요,/목수일도 전상이요, 농  
 사 지음도 전상이요,/술먹음도 전상이요, 담배먹음도 전상이요,/노름함도 전상이요,  
 밥 먹음도 전상이요,/인간살이 모든 일이 전상입니다./전상군졸은 이려하옵니다./학  
 겼미, 족겼미, 단단춘이 옥년네. 단년네/허와택이, 서천득이, 막택이, 서택이,/청사록,  
 백사록, 나무광대, 정적궁/불도신면, 시왕수미, 대사록 남산들머리입니다.